

나주시-한국철도학회, 광주~나주 광역철도 공청회 개최

광주시, 전라남도 공동 참여 6월 예타 통과 촉구 기원

나주시가 한국철도학회와 '광주~나주 광역철도 공청회'를 열고 오는 6월 예정된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를 한목소리로 촉구했다.

나주시(시장 윤병태)는 지난 27일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1층 국제회의장에서 한국철도학회, 광주광역시, 전라남도과 공동으로 '광주~나주 광역철도사업 공청회'를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날 공청회에선 주제 발표와 관계 전문가 토론,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를 기원하는 카드 섹션 퍼포먼스 등이 진행됐다.

윤병태 시장, 이재남 시의회의장을 비롯해 지역 도·시의원, 교통·철도분야 전문가, 시민 100여명이 참석해 광역철도사업 추진현황과 계획, 기대효과 등을 함께 공유했으며 상호 의견을 개진했다.

광역철도사업 사전 타당성 조사 연구원을 역임한 김태근 스튜디오갈릴레이 컨설팅사업본부 그룹장은 주제 발표를 통해

광주~나주 광역철도 인프라 추진현황과 발전전략을 설명했다.

광주~나주 광역철도는 국토균형발전과 지방 소멸극복을 목표로 전국 유일의 공동 혁신도시를 연결하는 서남권 최초의 광역철도 국책사업이다.

광주 상무역을 시점으로 대촌을 거쳐 나주 남평, 혁신도시, KTX나주역을 연결하는 총길이 26.26km의 복선 전철을 오는 2030년까지 구축할 계획으로 사업비 1조5192억원이 투입된다.

지난 2021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 반영돼 2023년 5월 국토교통부의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으로 선정됐으며 올해 6월 예비타당성조사 심의를 앞두고 있다.

노선이 완성되면 권역 간 이동시간이 30분대로 줄어들 전망이다.

전문가 토론은 이준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철도정책연구실장을 좌장으로 김재만 경기연구원 박사, 권성대 전남대학교 박



사, 이상준 전남연구원 박사, 김중현 경호엔지니어링 전무 등이 참여해 광역철도사업 필요성, 추진 현황, 기대효과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특히 광역철도사업은 단순한 교통 인프라 구축,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넘어 지방소멸 극복과 국토 균형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고 한 목소리를 냈다.

나주시와 광주광역시, 전라남도는 성공적인 광역철도사업 추진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오는 6월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를 최우선으로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공청회를 통해 광역철도사업에 대한 나주시민들의 간절한 염원을 보고 느낄 수 있었다"며 "전라남도과 나주시와의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통해 시·도간 상생발전을 위한 최적의 교통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광주~나주 광역철도 사업은 국가균형발전의 상징이자 양 시·도민의 이동권 향상은 물론 교통, 생활 인프라 교류 활성화를 통해 시·도 간 상생경제발전의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나주/이명열 기자



장세일 영광군수, 인구문제 인식개선 릴레이 캠페인

영광군(군수 장세일)은 28일, '인구문제 인식개선 릴레이 캠페인'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저출생, 고령화 등 인구감소 문제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사회적 인식개선을 위해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이 주관하여, 지난해 10월부터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 지자체를 중심으로 릴레이 방식으로 전개되고 있다. 장세일 군수는 조상대 곡성군수의 지목을 받아 캠페인에 동참했다.

장세일 군수는 "인구문제는 지역의 존립과 직결된 중대한 과제"라며, "출산·육아·청년 정착지원 등 실효성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지역사회와 함께 인구문제에 적극 대응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영광군은 통계청 기준 '6년 연속 합계출산율 전국 1위'를 기록하며, 저출생 위기 속에서도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지역'으로 주목받고 있다. 군은 출산 친화환경 조성을 위해 결혼장려금, 신생아양육비, 산후조리비, 아바 육아휴직 장려금 등 50여 종의 맞춤형 출산·육아 정책을 운영하고 있으며, 청년 정착과 일자리 지원 등 인구유입을 위한 다양한 정책도 추진 중이다.

한편, 장세일 군수는 다음 릴레이 참여자로 김병내 광주남구청장과 김강현 영광군의회 의장을 지목해 캠페인 동참을 요청했다.

영광/이희식 기자

광양시, '남도에서 한 달 여행하기' 참여자 모집

7박 8일 체류 여행 가능자... 숙박비, 식비 등 일 최대 10만원 지원

모집규모는 1~2인으로 구성된 총 8팀, 16명 이내로 7박 8일 여행 기간 동안 숙박비, 식비, 체험활동비 등을 1일 최대 10만원 지원한다.

모집대상은 전남·광주 거주자를 제외한 만 18세 이상 광양 7박 8일 체류 여행 가능자로 광양여행 홍보가 가능한 SNS 능통자여야 한다.

광양시청 누리집 공고란을 참고하면 된다.

시는 여행작가, 유튜브, 파워블로거 등 인플루언서를 우대 선정하고 여행후기, 광양 숨은 명소 추천 등 필수 및 선택 과제를 부여해 홍보 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김미란 관광과장은 "진정한 여행은 스쳐가는 것이 아니라 머물고 살아가는 것"이라면서 "천혜의 자연과 풍부한 먹거리를 가진 광양에서 현지인처럼 살아보고 광양관광의 매력을 널리 알릴 파급력 있는 인플루언서들의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광양/신선호 기자

화순군, 영농부산물 안전 처리 지원

농업인 위한 영농부산물 파쇄지원단 운영... 산불 예방 효과

화순군(군수 구복규)은 28일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발생하는 영농부산물의 일부 불법 소각으로 인한 산불 발생 방지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하여 영농부산물 안전 처리를 지원 중이라고 밝혔다.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지난해부터 영농부산물 파쇄지원단을 운영 중이다. 산림 인접 농지 및 취약 농지 등을 우선으로 영농 현장에 직접 찾아가 파수 잔가지 및 고춧대 등의 파쇄 작업을 지원하고 있다.

현재 상반기 파쇄지원단 운영은 지난 1~2월 읍면 수요 조사를 통해 접수된 58개 농가를 대상으로 3월 4일부터 5월까지

순차적으로 지원 중에 있으며, 하반기는 10월~12월에 운영될 예정이다.

그 밖에도 농업기계임대사업소에서는 마을 단위 또는 농업인 단체 등을 대상으로 잔가지 파쇄기 무상 임대 지원하고, 개별 농가도 일정 임대료에 잔가지 파쇄기를 임대 활용할 수 있다.

화순군농업기술센터 류창수 소장은 "무심코 하는 소각 행위가 돌이킬 수 없는 재난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며, "파쇄기 무상 임대와 파쇄지원단 신청으로 산불 예방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화순/김종환 기자

장흥군, 농산어촌유학마을 입주자와 '소통의 장' 마련

구직희망가구 장흥군 인구청년정책과 일자리 연계

장흥군은 지난 27일 장평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장평면리 농산어촌유학마을 입주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소통간담회를 개최했다고 전했다. 이번 간담회에 참석한 주민은 올해 3월에 조성된 농산어촌 유학마을 입주주민이다.

총 10세대 34명 규모의 입주주민들은 가족체류형 유학으로 가족의 전체 또는 일부가 이주하여, 장흥군에서 제공하는 주택에서 생활하고 있다.

이번 사업에 참여한 초등학교 1학년부 터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은 최소 6개월부터 최대 5년까지 전남교육청에서 30만원의 경비를 지원받으며 유학생활을 경험할 수 있다.

간담회에서는 유학마을 기본 수칙 및 안내사항과 더불어 전담장려금, 학습장려

금 등의 장흥군 전입 지원정책에 대해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입주민들을 대상으로는 일자리 취업상담 자리를 마련했다.

구직을 희망하는 4명의 학부모들은 장흥군 일자리상담사와 연결을 통해 관련 관련 정보를 얻었다.

입주민 생활불편과 건의사항을 접수한 결과 ▲ 유학마을 내 도로 가로등과 거점 쓰레기 수거대 설치 건의 ▲ 전기자동차 주차장 설치 ▲ 잔디관리 ▲ 지원금 확대 등의 안건이 나왔다.

군에서는 군 포괄 사업비지원, 생활쓰레기 거점 수거대 운영, 전기차 완속충전기 보조사업과 연계해 불편사항을 신속히 해결해 나갈 계획이다.

/장흥군 제공

광전매일신문

TEL. (062) 525-9775

FAX. (062) 528-4566

25.4.1~4.14 기념 프로모션
영암콜 새단장
전상품 20% 할인쿠폰 + 새단장 쿠폰 이벤트! 영암콜의 특별한 혜택을 만나보세요!
*무분 다문화 후 구매 시 적용을 제외합니다.

온라인 영암콜, 봄맞이 새단장하고 20% 할인 판매

'영암콜 한눈에 보기', 간편 결제서비스 도입... 4/1~14일 전 품목 할인

봄을 맞아 영암군(군수 우승희)이 24일 온라인 농특산물 쇼핑몰 '영암콜'을 새 단장하고 손님맞이에 나섰다.

이번 새단장으로 영암콜은 '영암콜 한눈에 보기' 항목을 추가해 영암군 대표 농특산품을 이용자가 더 직관적으로 볼 수 있게 만들었다.

아울러 휴대폰 앱 등을 활용한 온라인 간편 결제서비스를 도입해 이용자의 대금결제 편의를 더했다. 영암콜은 이번 새 단장을 기념해 4/1~14일 2주간 전 품목 20% 할인 판매를 실시한다.

나아가 신규회원 가입, 리뷰 작성, 쿠폰

이벤트 등 다양한 참여형 이벤트로 풍성한 혜택도 제공한다.

이승준 영암군 농특산물통과장은 "소비자에게 더 큰 혜택과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영암콜을 새롭게 개편했다. 이번 할인 판매 등을 활용해 영암콜에서 영암의 우수한 농특산물을 저렴하게 구입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2025년 현재 영암콜에는 92개 업체가 입점해 있으며 친환경 쌀, 한우, 고구마, 대봉감 등 212개의 신선한 농특산물이 판매되고 있다.

영암/김희선 기자

이 작품은 국민 김라온님이 제안한 공익광고입니다. - 2024 정부광고 크리에이티브 페스티벌 수상작

독서로 찾는 강력하고 건강한 도파민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
 최대한 담백하게 사는 것...
 내가 창조하는 삶을 살아갈 것...
 지금처럼 버티다 보면 이 순간이...
 힘들수록 나 자신을 사랑할 것...
 헛살 같은...
 나의 가치를 내가 찾을 것...
 특별함을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예쁘다고 다 끌리는 게 아니고...
 마음먹기에 그가 얼마나 따뜻한 사람이었는지...
 우리는 몇 장짜리 책이까...
 기념스레 생각...
 평범함의...
 정말이다. 공전으로 맞물려...
 마음이 편해진다...
 몇 장이나 될까...
 현재의 미래와 걸러낼 수 없는 것이긴...
 풍만한...
 고유의 색을 가능...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
 미래의 현재가...
 내가 정말 괜찮은 사람이 되면...
 기회는 위기 속에서 찾아온다는 건...
 엔다...
 그 자체만으로도...
 좋은 거라면...
 언제나 우연...
 된다

독서는 우리의 문해력과 사고력을 키워주는 큰 자산입니다. 책을 통해 더 넓은 세상을 경험하고 진정한 '나'를 만듭니다. 소셜 미디어와 숏폼에서 얻은 일시적인 자극 대신, 독서라는 건강하고 긍정적인 자극을 선택해 보세요.

한국언론진흥재단 Korea Press Foundation 서울특별시교육청

이 공익광고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정부광고 수수료를 지원받아 실시되었습니다.